

2023. 3. 14.(화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3월 1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

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2133-7130

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2133-7290

담당자 윤효한 2133-7293

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

치수안전과장 최연호 2133-3860

치수관리팀장 김병오 2133-3897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담당자 박이연 2133-3871

서울시,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'설치비 절반' 지원한다

- 폭우 시 침수 위험 또는 침수 이력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
- 설치비 50%, 세대수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... 3월 중 자치구로 신청
- 시 조사 결과, 침수 위험 82개 단지 포함 신청단지 7월 전 조속한 설치 지원
- 시 "물막이판 등 침수 피해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속 설치·확보해 나갈 것"

서울시가 지난 10년 사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.

서울시는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 설치비용의 최대 50%(단지 당 최대 2천만 원)까지 지원하며,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3월 중 각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.

- 시는 시간당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경우, 빗물이 한꺼번에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물이 차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이번 '지하주차장 입구 차수관 설치'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
 -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, 침수 이력 또는 침수 위험이 조사된 11개 구 총 82개 단지를 비롯하여 신청단지에 신속하게 차수관 설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.
- 공동주택은 '민간 소유'이므로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우선 설치토록 하되 시는 150세대 당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1개소씩, 설치비의 최대 50%, 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.
- 예를 들어 150세대 단지는 1개소, 151~300세대는 단지는 2개소 등 세대수와 비례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 물막이판 전체 설치비의 50%를 지원하는 것이다.
 - 시는 대단지와 중·소규모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별 지원금을 2천만 원으로 제한, 최대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- 서울시는 3월 중 침수 위험 또는 피해 단지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, 자치구가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받아 4월부터는 설치를 시작하여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.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폭우 시 주차장 침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'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

설치 지원'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라며, 그밖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